

# '불굴의 오뚜기' 임효준, 한국 첫 금메달 선사

**男 쇼트트랙 1500m서**  
 임효준(22·한국체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10일 밤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10초485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이정수가 세운 올림픽 기록 2분10초949를 갈아치운 신기록이다. 2위는 네덜란드의 심키 크네흐트(2분10초555), 3위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세멘 엘리스트라토프(2분10초687)가 차지했다.



지난 10일 밤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임효준이 2분10초485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사진은 임효준이 우승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

**2분10초485 기록**  
**밴쿠버 올림픽 이정수**  
**2분10초949 갈아치워**

9명이 벌인 결승에서는 초반부터 자리싸움이 치열했다. 임효준, 황대현(19·부흥고)은 초반 중간에 자리를 잡고 레이스의 흐름을 살폈다. 9바퀴를 남겼을 때 임효준과 황대현이 동시에 치고 나왔다. 임효준이 먼저 선두로 올라서자 뒤따르던 황대현이 임효준을 앞지르면서 선두가 바뀌었다. 6바퀴를 남기고 크네흐트가 치고 올라오며 선두를 빼앗겼다. 3바퀴를 남기고 임효준이 인코스스를 파고 들었다. 두 바퀴를 남긴 마지막 코너에서 임효준을 뒤따르던 황대현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황대현은 끝내 경기를 마치지 못했다. 2위인 세라 벤츠(캐나다)에 0.002초 뒤져 3위에 그친 서이라(26·화성시청)는 준결승에서 2위 차지

못했다. 스 해틀린(캐나다)에 0.002초 뒤져 3위에 그친 서이라(26·화성시청)는 준결승에서 2위 차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신설된 쇼트트랙 1500m에서 한국 남자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안현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정수에 이어 임효준이 세 번째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노메달'에 그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평창 대회 첫 종목에서부터 금메달을 쟁취하며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임효준은 어려서부터 '천재'로 통했다. 초등 학교 4학년 때 6학년생들을 제치고 종별선수권에서 우승했을 정도다. 그러나 부상에 발목을 잡힌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중1 때 정강이 뼈 골절로 1년반을 쉬었고, 고2 때는 오른 발목이 부러져 또 수술대에 올랐다. 이후에도 부상은 끊이지 않았다. 발목 인대 파열상, 허리 압박 골절, 그리고 손목 등 다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7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임효준은 스케이트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에 참가하면서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이정수, 신다운 등 쟁쟁한 선배선수들을 따돌리고 전체 1위로 올림픽 티켓을 따냈다. 국가대표가 된 임효준은 2017~2018 ISU 1차 월드컵에서 1000m와 1500m 금메달, 500m 은메달에 5000m 계주 동메달까지 전 종목에서 메달을 거둬들였다. 이때 또 부상이 찾아왔다. 1000m 결승에서 허리 열좌 진단을 받았다. 임효준이 2, 3차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다. 부상에서 회복한 뒤 서울에서 열린 4차 월드컵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올림픽을 준비했다. /뉴시스

## 女 아이스하키 단일팀 '아쉽지만 잘 싸웠다'

**세계랭킹 6위 스위스를 상대하기에 역부족... 0-8 패배**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은 스위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지난 10일 밤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B조 예선 1차전에서 세계랭킹 6위 스위스에게 0-8(0-3, 0-3, 0-2)로 참패했다. 남북단일팀은 스위스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랭킹 22위, 북한은 25위다. 북측 선수 12명이 지난달 25일 합류, 결성된 단일팀은 35명이 대회에 나섰다. 경기 엔트리는 22명으로 같지만, 북측 선수 3명이 의무적으로 경기에 출전하도록 돼 있다. 대표팀 세라 머리 감독은 2~4라인에 북측 선수를 1명씩 내보냈다. 정수현 2라인, 김은향 3라인, 황충금이 4라인에 자리했다.

막아내는 데 급급했다. 1파이어드 종료 11.8초를 남기고 밀러에게 3번째 골을 허용, 점수는 0-3까지 벌어졌다. 단일팀은 2파이어드 시작과 동시에 수비 실수까지 저지르며 밀러에게 4번째 골을 얻어맞았다. 수비수가 걸어난 퍽이 밀러에게 향했고, 밀러는 놓치지 않았다. 수비가 붕괴된 단일팀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피베 슈텐츠에게 5번째 골을 허용했다. 단일팀은 2파이어드 중반 벤츠의 일리걸 히트 페널티로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지만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단일팀은 2파이어드 17분19초쯤 수비 집중력이 무너져 슈텐츠에게 6번째 골을 내줬다. 0-6으로 끌려가던 단일팀은 3파이어드에선 스위스의 스탠더에게 연속골을 허용, 완패했다. 단일팀은 12일 오후 9시 10분 스웨덴(1승)과 조별예선 2차전을 치른다. /뉴시스

### 방탄소년단 BI,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9일 빅히트에 따르면, 빅히트는 최근 iF 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이하 BI)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Communication Design) 중 기업 아이덴티티/브랜드링(Corporate Identity/Branding)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받았다. 각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63명의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의 BI는 빅히트가 지난 7월 새롭게 선보인 디자인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상징화했다. 빅히트는 "브랜드 의미는 데뷔 때부터 방탄소년단을 표현해왔던 10대의 억압과 편견을 막아주는 소년들이라는 뜻을 유지했다"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청년"이라는 '비욘드 더 씬(Beyond The Scene)'의 의미를 더해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했다"고 소개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에서 매년 주최한다.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 미국 '아이디어에이(MEI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이번에는 54개국으로부터 접수된 6400개 이상의 출품작이 수상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